

Petrobras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

(14. 11. 22)

상과울루사무소

1 배경

- 대통령 선거 전후, 현 지우마(Dilma) 정권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Petrobras의 부패 스캔들이 재점화 되면서 연방경찰이 돈세탁 등 동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Petrobras 회계감사법인인 PWC(Price Waterhouse & Coopers)는 3분기 실적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보류 중
- 한편 일부지역에서는 지우마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군부의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반정부시위가 발생

2 국제신용평가기관 입장

- (Moody's) 그동안 부패 스캔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으나, '14. 10월 Petrobras의 과도한 차입규모 등을 근거로 동사의 등급을 종전 Baa1에서 Baa2로 낮춤.
 - 현재까지 추가 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
 - 다만 브라질 국가신용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Petrobras의 등급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
- (Standad & Poor's) 최근 11월 14일 Petrobras의 부패스캔들 및 3분기 재무제표 공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으로 Petrobras의 등급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
 - 그러나 향후 Petrobras의 자체 신용등급 하락사유 발생 시 브라질 국가신용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등급을 추가 하향조정 할 수 있음을 시사

- (Fitch) 현재 브라질 연방경찰이 수사 중인 Petrobras의 부패 스캔들에 대해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가장 부정적인 입장
 - Fitch는 이번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Petrobras의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

3

사무소 견해

- Petrobras의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지
 - 회계법인 PWC의 검토의견 보류는 이번 정유시설 매입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 이외에도 Petrobras의 전반적인 자산실사와도 유관 (현지 금융기관 추정)
 - 차입금이 과다한 상황에서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향후 심해유전 개발 등으로 추가 자금수요가 많아 당분간 재무안정성 개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임.
 - 또한 이번 3분기 재무자료 공시 지연은 Petrobras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Funding cost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